

결혼이민자의 언어·문화 역량 기반 활동 활성화

수행과제명 :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구축(Ⅳ):

생산적 다문화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의 질적 도약 기반 구축

과제책임자 : 김이선 연구위원

Tel : 02-3156-7158, e-mail : yskim@kwidimail.re.kr

요 약

이주의 경험으로 통해 획득한 언어·문화적 역량을 바탕으로 한 결혼이민자들의 사회활동, 경제활동은 이민자의 빈곤화, 사회적 고립 등과 같은 다문화사회의 고질적 문제를 해소하고 나아가 다양성을 바탕으로 사회 전반적인 발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그간 한국사회에서 주목하지 못했던 결혼이민자의 다양한 언어·문화 역량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사회활동, 경제활동 차원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본격적인 지원이 필요함.

1. 정책의 목적 및 필요성

- ☐ 결혼이민자는 이주의 경험으로 통해 서로 다른 언어·문화적 배경에 대한 역량을 지니고 있음. 이러한 역량을 바탕으로 한 사회활동, 경제활동은 이민자의 빈곤화, 사회적 고립 등과 같은 다문화사회의 고질적 문제를 해소하고 나아가 다양성을 바탕으로 사회 전반적인 발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이러한 점에서 최근 정부가 결혼이민자의 경제적 자립을 목적으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나 여성인력개발센터 등에서 결혼이민자의 언어·문화적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기 시작한 것은 주목할 만함.
 - 일례로 2009년에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개설된 직업훈련과정 중 절반이 언어·문화역량을 기반으로 한 직업훈련으로 취업률도 80.2%에 달해, 일반 직업훈련과정보다 월등히 높은 성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은 상당한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임.
 - 언어·문화역량을 기반으로 한 직업훈련과정이 우리 사회에서 시장성이 높은 영어나 중국어와 같은 주요 외국어를 가르치는 강사 양성 과정이 주를 이루고 있는 점이 주요한 한계로 지적될 수 있음. 이로 인해 소수 언어나 언어 외에 결혼이민자가 갖고 있는 다양한 문화적 역량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회는 제공되지 않고 있음.
- 이에 그간 한국사회에서 주목하지 못했던 결혼이민자의 다양한 언어·문화 역량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사회활동, 경제활동 차원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본격적인 지원이 필요함.

2. 정책의 추진방향

- 언어·문화적 역량을 활용한 직종 개발 및 지원체계 구축
 - 결혼이민자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언어·문화적 역량을 개발하여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지원 프로그램 개발
 - 한국과 본국을 연계한 국가간 사업, 본국 문화를 한국사회에 접목하거나 거꾸로 한국문화를 본국으로 접목하는 창업 아이템을 개발하고 창업과정을 지원하며, 경영과 판매 지원하는 창업 지원 창구 마련
 - 일부 시도되고 있는 사회적 기업 형태를 통한 문화적 역량 개발 및 활용

기회 확대

- 의료관광코디네이터 양성 프로그램이나 문화관광해설사와 같이 양국간의 언어와 문화자본을 필요로 하는 직종 개발, 직업훈련기회 제공
- 결혼이민자의 언어·문화적 역량에 기반한 직종 개발, 직업훈련 전담 기관 지정, 인력 배치
- 새일센터를 여성결혼이민자 취업지원 서비스 전담기관으로 지정
- 전담인력 배치, 결혼이민자의 언어·문화적 역량에 기반한 직종 개발, 직업훈련 기능 부여, 전담인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 실시

□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및 이중언어교육 분야 전문인력 개발

- 통·번역사, 상담사, 한국어 또는 아동양육지도 방문지도사 양성을 위한 전문과정 개설, 전문가수준의 업무를 담당할 결혼이민자들을 위한 한국어 고급과정 개설
- 초기 정착기 결혼이민자의 정착지원 서비스는 출신국 결혼이민자가 제공하고 이 단계를 거친 결혼이민자들에게 한국인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방안 제도화
- 다문화가족 자녀나 중도 입국 외국인자녀들의 학교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직종 개발, 직업훈련 실시, 지역교육청이나 학교군별로 순회지도하는 방안 제도화 검토
- 출신국가에서 취득한 학력이나 경력, 자격 인정, 연계 방안 강구
- 출신국가와 우리나라의 교육제도, 교육과정, 자격증 제도 등에 대한 비교연구 실시
- 국가간 학력 및 자격증 상호인정 수준 및 범위 제도화
- 학력 및 자격증 인정에 필요한 추가 교육기회를 제공 검토

□ 결혼이민자의 언어·문화적 역량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기회 확대

- 언어·문화적 역량 기반 자조모임, 시민단체 활동, 지역사회활동, 경제활동 등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한국사회에서 요구되는 역량과 전문성, 사회적 관계망 갖출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다양한 형태로 열려 있는 평생교육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강구.
-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을 위한 검정고시 준비 지원
- 전문대학 및 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을 통한 학점인정제도 활용 방안 모색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취업 결혼이민자들을 위한 전문대학의 산업체위탁교육기회 제공

□ 언어·문화적 역량의 사회적 활용 촉진을 위한 브리지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 결혼이민자가 한국사회의 주체로 성장하고 이들의 존재를 통해 다문화사회가 긍정적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는 가능성을 넓히기 위해 결혼이민자와 한국사회 간에 다양한 방식의 교류와 이를 통한 긍정적 상호작용 촉진 기회 제공
- 내국인과 결혼이민자가 함께 하는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함으로써 결혼이민자나 다문화가족이 단순히 복지정책의 수혜대상자가 아니라, 고유의 언어·문화적 역량을 갖춘 사회구성원으로서 존중받고, 지역 주민들의 다문화 감수성을 제고하는 한편,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에 대한 편견을 불식시킬 수 있는 다양한 장 마련
- 지역사회에서 한국인과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이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소통할 수 있는 브리지 프로그램 개발, 추진 지원

※ 호주 '화합을 이루는 삶 프로젝트'(Living in Harmony Project)

※ 상호 교류의 예: 농촌사회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가 부녀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일본어 교실 운영, 필리핀 결혼이민자 자조모임에서 지역사회의 한국가족 자녀들에게 영어연극 연습에 참여 기회 개방

3. 정책효과

- ☐ 결혼이민자의 사회주체로서의 위상 확립 및 능동적 사회통합 촉진
- ☐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생활기반 확립
- ☐ 다양한 언어·문화 역량을 기반으로 한 사회 개발 가능성 확대

-
- ▶ 주관부처 : 여성가족부(다문화가족과), 고용노동부
 - ▶ 관계부처 : 국무총리실 , 사회통합위원회(세대분과팀), 지방자체단체
-